

‘아시아 제 1 거리’ 땅속을 질주하는 장춘 지하철 1 호선

“북경에 장안거리가 있다면 장춘엔 인민거리가 있다.”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조 광서 33년(1907년)에 건설에 들어가 올해로 나이 117살을 자랑하는 장춘 인민거리는 ‘아시아 제 1의 남북거리’로 불린다. 장춘시 도심의 제 1 주요 도로이며 아시아의 가장 긴 거리중의 하나이다.

이런 인민거리 땅속에서 ‘붉은 거름’이 기적소리를 내며 남에서 북으로, 또 북에서 남으로 불철주야 움직이고 있으니 바로 장춘 지하철 1 호선이다.

장춘은 항함과 대만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지하철을 보유한 58 개 주요 도시중의 하나이다. 지난 3월 28 일에 장춘 지하철 6 호선이 정식 개통되면서 장춘시에는 1 호선, 2 호선, 3 호선, 4 호선, 6 호선, 8 호선 등 도합 6 갈래의 이미 개통된 지하철 로선이 있는데 총 마일리지가 140 여키로메터에 달한다. 2026 년까지 장춘시의 지하철 총 마일리지는 235 키로메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장춘 지하철은 오랜 친구처럼 오늘도 도시 곳곳의 땅속을 누비며 동북에서 지하철이 있는 몇 안되는 도시의 자랑거리로 되고 있다. 지하철은 장춘 시민들의 일상적인 출행에 편리를 도모해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깊은 감정과 기억을 담고 있다.

그중에서 지하철 1 호선은 2017 년 6 월 30 일에 정식으로 개통됐는데 어언 7 년이 넘는 세월을 시민과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면서 960 여만 명 장춘 시민의 출행에 아주 중요한

교통도로로 굳건히 자리잡았다. 북에서 남으로 관성구와 조양구, 남관구 등 3 대 도시구역을 지나면서 북환성로(8 호선 환승역)—경풍로—일광거리—장춘역북(4 호선 환승역)—장춘역(3 호선 환승역)—승리공원—인민광장—해방대로(2 호선 환승역)—동북사대—공농광장—번영로—위성광장(3 호선 환승역)—시정부—화경로(6 호선 환승역)—홍취자 등 15 개 역이 18.14 키로메터 구간에 설치되어있다. 1 호선은 장춘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한 인민거리와 북인민거리의 땅밑을 누비며 길림성과 장춘시의 중요한 당정기관, 교통중추와 상업중심, 풍경구, 공중문화지구, 명문대학교와 중학교 등을 1 차로 연결시켰다.

장춘 지하철 1 호선은 일찍 2002 년 10 월에 개통된 3 호선에 비해 근 15 년이나 늦게 개통되었지만 그 중요성과 특수성은 연선에 분포되어있는 건물들을 보고서도 한눈에 알 수 있다.

1 호선 연선에는 성당위와 성정부(승리공원 지하철역 D 출구), 시당위와 시정부(시정부 지하철역 D 출구) 등 당정기관이 있는가 하면 장춘역(장춘역 지하철역 C 출구), 장춘역북과 개선도로려객운수역(장춘역북 지하철역 E 출구), 장춘려객운수중심역(장춘역 지하철역 A 출구), 장춘고속도로려객운수역(위성광장 지하철역 D 출구) 등 교통중추가 포진되어있다.

그외에도 길림대학 남캠퍼스(공농광장 지하철역 B 출구), 동북사범대학 자유캠퍼스(동북사대 지하철역 C 출구), 장춘대학(위성광장 지하철역

A2 출구) 등 명문대학과 동북사범대학부속중학교(위성광장 지하철역 C 출구), 장춘외국어실험학교(공농광장 지하철역 B 출구) 등 명문중학교가 있는가 하면 장춘세계조각원(시정부 지하철역 B2 출구), 승리공원(승리공원 지하철역 A 출구), 아동공원과 모람원(해방대로 지하철역 B 출구) 등 여러개의 다양한 공원이 있다.

장춘백화점사(인민광장 지하철역 A 출구), 만상성(해방대로 지하철역 B 출구), 아태부원(인민광장 지하철역 B 출구) 등 유명한 상가와 길림성빈관(인민광장 지하철역 C 출구), 상그릴라호텔(인민광장 지하철역 D 출구), 명문호텔(해방대로 지하철역 E 출구), 춘의빈관(장춘역 지하철역 A 출구), 국제무역대호텔(인민광장 지하철역 A 출구) 등 주요한 성급 호텔들도 즐비하여 외지 관광객들의 쇼핑과 류숙에도 아주 편리하다.

1 호선의 여러 지하철역은 합리적으로 분포되어 도시의 주요 지역을 포괄하며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다.

1 호선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특성을 갖고 있다. 열차 운행시간 간격이 3 분에서 5 분 사이로 짧아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6 대의 최신식 편성 B2 형 열차를 도입해 열차당 약 1,200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 출퇴근길의 교통량을 확보한다. 지난 5.1 연휴에는 하루 운송량이 30 만명을 넘었다고 한다.

또한 1 호선은 승객들의 쾌적함과 안전성에도 중시를 돌리고 있다. 역과

열차 내에는 안전문과 카메라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해 승객들에게 안전한 승차 환경을 제공한다. 지하철역에는 엘레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, 무장애시설을 골고루 갖춰 로인과 장애인들의 출행 편의를 돕는다.

1 호선은 도시의 교통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녹색친환경 출행 방식으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며 연선지역의 경제 발전도 촉진해 장춘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징표로 되었으며 7 년간의 깊은 정으로 도시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동맥일 뿐만 아니라 정감이 있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며 꿈과 희망을 담고 있다.

장춘궈도교통그룹유한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장춘 지하철 1 호선은 여름철에는 5:15 부터 22:35 까지, 겨울철에는 5:15 부터 22:05 까지 평균 시속 80 키로메터로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다.

장춘시 지하철 1 호선 남쪽 연장 공사가 긴장한 시공중에 있는바 2026 년에 개통되면 운행거리가 남쪽으로 7 키로메터 더 연장된다. 지하철 1 호선 남쪽 연장 공사가 개통되면 올해 처음으로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는 동북아회의전시센터의 인프라 건설을 더욱 완벽하게 할뿐더러 장춘 시내를 남쪽으로 더 확장하는 등 중대한 의의도 있다. 그때가 되면 장춘시 인민거리는 장춘시의 진정한 중심축으로 될 것이며 1 호선의 역할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. /유경봉 오건 기자



장춘 인민거리의 북쪽 출발점이며 1 호선 경유역인 장춘기차역



장춘 지하철 1 호선의 남쪽 출발역인 홍취지역



동북사범대학 자유캠퍼스



인민광장역 출입구



각 지하철역 내부 일각



인민광장